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7 Number 09 **09** 2019

CGNTV, 9월 7일부터 방영



창세기의 **비밀**을 풀다

Unlocking the Mysteries of Genesis

오는 9월 7일부터 CGNTV에서 <창세기의 비밀을 풀다>(Unlocking the Mysteries of Genesis) 시리즈가 방영된다. UMG는 미국창조과학연구소(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에서 12개의 DVD 시리즈로 최근에 제작된 명작이다. 이 시리즈가 CGNTV에서 매주 한국어로 자막 방송이 이루어진 것이다. UMG는 각 22분 길이로 아래 주제를 담고 있다.

1. 카오스냐 코스모스냐? (Chaos or Cosmos?)
2. 생명이란 무엇인가? (What is Life?)
3. 인간이란 무엇인가 (What is Man?)
4. 매몰된 단서들 (Buried Clues)
5. 홍수냐 허구냐? (Flood or Fiction?)
6. 지구는 얼마나 오래되었나? (How Old is Earth?)
7. 공룡! (Dinosaurs!)
8. 빙하시대 (The Ice Age)
9. 문명의 출현 (Rise of Civilization)
10. 우주의 기원 (Origin of The Universe)

11. 지구의 유일성 (Uniqueness of Earth)
12. 과학과 성경 (Science and Scripture)

UMC는 위에 나열된 창조과학의 기본적 주제에 대하여 각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동하여 세속적 사고에서 나온 진화의 문제점과 함께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 성경을 변증하는 탁월한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 1 장부터 11장의 바벨탑 사건까지 과학의 각 분야부터 고고학까지 각 분야에서 접근하는 획기적인 작품이다.

그동안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되어왔다. 이제까지 단지 DVD로만 개인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더 훌륭한 번역과 함께 TV로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족과 주위 분들에게 권유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서 벗어나 성경으로 돌아오는 열매가 맺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CGNTV께 감사드립니다.

젊은 지구에 대한

4가지 지질학적 증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층이 형성되는데 수백만 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인들과 지질학 전공자들은 이러한 가정이 사실이라고 수십 년에 걸쳐 배워왔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종류의 지층이라도 적당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빠르게 형성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젊은 지구에 대한 네 가지의 지질학적 증거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강력한 증거는 우리가 약 6천년 된 지구를 지지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적 데이터는 퇴적암이 수백만 년만큼 오래될 수 없다는 걸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1. 오랜 지구를 설명하기엔 침식이 너무나도 빠르다.

수백만 년 된 암석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오늘날의 실제 침식 속도를 생각할 때 지구 표면에 노출된 암석들이 수백만 년의 시간을 견디고 현재까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속적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최근 관찰되는 침식 속도는 너무 빨라서 지금 속도라면 대륙은 이미 오래 전에 해수면 높이까지 낮아져야 했다. 근래의 연구는 지표면에 노출된 암석이 백만 년에 평균 40피트, 약 12미터 정도 침식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대부분의 대륙이 완전히 침식되는데 5천만년이상 걸리지 않음을 의미한다.

세속적인 지질학자들은 오늘날의 대륙을 설명하기 위해 지각 변동에 의한 융기와 같은 상상에 의존해야만 했다. 그러나 세속적인 지질학자들이 2억 5천만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말하는 애팔라치안 산맥은 형성된 이래로 캐나다와 미국 동부에 걸친 부분에서 어떤 융기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대부분이 해수면으로부터 1천피트, 약 300미터 위로 솟아 있는 것을 볼 때 해수면보다 고도가 높은 육지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세속적인 지질학자들이 설명했듯이 1천피트, 약 300미터 솟아 있는 육지는 2



천5백만년이면 모두 침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대륙이 굉장히 오래 되었다면 어떻게 해수면 위로 육지가 존재할 수 있을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륙들과 암석의 침식 속도는 젊은 지구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다.

2. 혈암과 사암은 흐르는 물에 의해 빠르게 퇴적될 수 있다.

세속적 과학은 지구상의 많은 퇴적암이 엄청난 시간에 걸쳐 천천히 퇴적되었다고 가르쳐왔다. 그리고 일반 진흙이나 석회질 진흙같이 느린 속도로 퇴적되는 물질들이 고여 있는 물을 통해서 천천히 쌓였기 때문에 이는 오래된 지구에 대한 증거라고 말한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두터운 지층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세뇌되어 왔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고여 있는 물에 흙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암석은 그런 방법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지구에서 가장 흔한 퇴적물인 진흙은 암석이 되기까지 잔잔한 물에서 천천히 퇴적되지 않는다. 혈암이나 이암처럼 진흙으로 주로 이루어진 암석들은 고인 물이 아닌 흐르는 물에 의해 퇴적될 때 선명한 층 구조를 잘 보여준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최근의 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층층이 쌓인 진흙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퇴적 되어야만 한다고 설명한다. 의문스러운 것은 오늘날에 보여주는 것처럼 지층 구조가 잘 나타나는 진흙 층이 거의 형성되지 않는데 이것은 땅을 파거나 땅 속과 지표층 오가는 생물들에 의한 활동으로 인해 얇은 층들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석회암도 천천히 형성되는 개념으로 배워왔다.



그랜드캐니언의 석회암과 혈암층

이런 탄산염(석회질)으로 이뤄진 암석들은 대륙의 지층 중 20~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랜드캐니언의 레드월 석회암(Redwall Limestone)은 400~800피트, 약 120~240미터의 두께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석회암 지층 중에는 3천피트, 약 1킬로미터가 넘는 것도 있다. 동일과정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듯 두꺼운 석회암층의 존재는 잔잔한 물이 이를 형성하는데 수백만 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해왔고 그래서 이점을 창세기 홍수에 대한 비판에 사용해왔다.

하지만 모든 이론이 바뀌었고 오랜 시간으로 설명하는 동일과정설적 신념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수로를 통한 연구들은 석회질 진흙이 천천히 퇴적되는 것이 아니라 물결과 수면 아래 물의 움직임으로 빠르게 퇴적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실험실의 연구는 초속 25~50센티미터의 빠르기로 흐르는 물이 물결 무늬와 관측 가능한 분명한 석회암 층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바(Juergen Schieber) 박사는 그의 공동 저자들과 이렇게 서술했다:

위의 실험들은 석회질 진흙이 동적인 환경에서도 퇴적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석회암이 가득한 지역과 암석 기록에 대한 최근의 관찰은 지구 역사에서 석회질 진흙이 흐르는 물에 의해 퇴적됐다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었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 결과는 혈암, 이암, 그리고 거의 모든 퇴적암들이 1년간의 창세기 홍수로 빠르게 퇴적된 결과라는 창조론적 지질학자들의 예측과 맞아 떨어진다.

3. 지층 사이의 시간 간격이 없다.

퇴적암과 그것들이 형성하고 있는 엄청난 다양한 지층은 각각의 지층들이 서로에게 평행한 마치 팬케이크 같은 모양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서 세속적인 지질학자들이 주장하는 지층 사이의 엄청난 시간 간격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지층 사이의 경계는 모든 방향으로 수십에서 수백 마일까지 뻗어 있다.

세속적인 과학자들은 종종 그랜드캐니언의 허밀(Hermit) 혈암과 그 위의 코코니노(Coconino) 사암과 같은 평행한 지층 사이에 수십 혹은 수백 만년의 시간을 넣으려고 한다. 하지만 이 두 지층의 접촉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십 마일에 걸쳐 아주 평평한 접촉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끔 작고 완만한 굴곡이 수 미터 정도 존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층은 서로 맞닿은 면이 완벽히 평행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어떤 굴곡이나 지형이 수십만 년의 침식에 의해 형성됐다고 할 수 있을까? 벽돌처럼 쌓인 각 지층의 접촉면은 시간 간격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그랜드캐니언을 비롯한 다른 곳의 많은 지층들은 엄청난 양의 시간 간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예시로 무아브(Muav) 석회암 위에 존재하는 붉은 석회암 벽의 저층부는 무아브 석회암 층과 1억 6천만년의 시간 간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서부 그랜드캐니언 지역의 결정화된 기반암(성경적으로 창조 때의 암석) 위에 존재하는 태핏(Tapeat) 사암층은 무려 10억년의 시간 간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레드월 석회암과 태핏 사암은 그랜드캐니언 전반에 걸쳐 가히 완벽할 정도로 평평하게 퇴적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태핏, 또 이와 비슷한 사암들이 북미 대부분의 지역에 넓게 펼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북미에서 사암이 발견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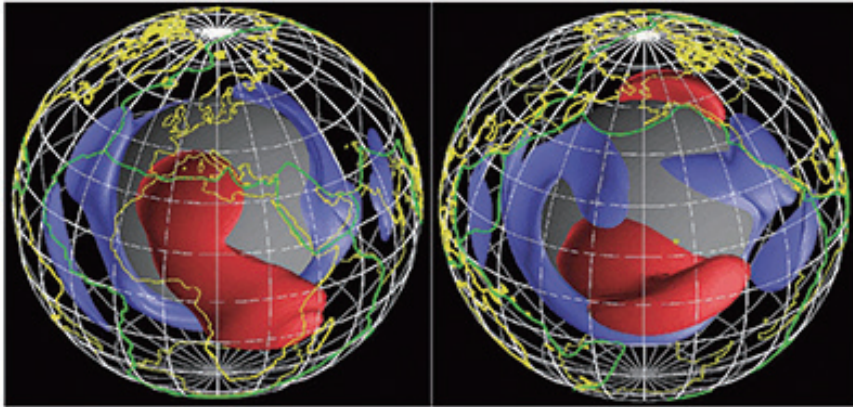
그랜드캐니언의 허밀 혈암(下) 코코니노 사암(上)의 경계



이러면 거의 모든 곳에서 태핏 사암층이 평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오랜 시간 동안 침식이 진행됐다면 어떻게 이런 평평한 면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이 증거는 대륙들을 가로지른 쓰나미와 같은 물결이 즉시 새로운 퇴적층을 만들었고 뒤를 이어 평평한 면을 만든 급격한 침식이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4. 맨틀 속에 차가운 대륙판이 존재한다

급격한 판의 침강은 격변적인 판 구조론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 중의 하나이고 노아 홍수 동안 이러한 판의 빠른 움직임은 차가운 해양 지각이 맨틀에 있다는 것을 단층 촬영 기법으로 확인하여 알 수 있다. 만약 세속적인 과학자들이 주장하듯이 해양 지각이 1년에 수 센티미터씩 움직인다면, 이미 오래 전에 뜨거



지진 단층 촬영에서 보여주는 하부 맨틀의 밀도가 높은 (파란색) 물질과 덜 치밀한 (빨간색) 물질의 영역

운 맨틀에 녹아 들었어야 했으며 또한 주위의 물질과 비교했을 때 그러한 높은 밀도, 다르게 말하면 낮은 온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즉, 해양 지각의 낮은 온도는 겨우 수천 년 전에 빠른 속도로 맨틀에 들어갔음을 가리킨다.

ICR의 물리학자 허버트(Jake Herbert) 박사는 맨틀을 단층 촬영한 이미지로부터 발견한 것을 이렇게 정리했다:

단층 촬영 기법이라고 불리는 영상 처리 과정을 통해 맨틀의 하층부에서 밀도가 높은 고리 모양의 암석을 밝혀냈다. 그 위치가 대략 태평양 둘레와 대응되기 때문에 이는 해양 지각의 침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고리 모양의 차가운

암석 안에는 지각 쪽으로 밀려 올라간 듯한 그보다 밀도가 조금 낮은 암석 덩어리가 존재한다. 가장 쉬운 가정으로 차가운 고리 모양 암석의 밀도가 주변 물질들과 비슷하다고 했을 때, 바깥쪽 암석이 내부의 암석보다 온도가 3~4000도나 차가운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맨틀의 가장 아래까지 내려가는데 10억년이 걸린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판 구조론 모델에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10억년의 시간 동안에는 어떤 온도 차이도 결국에는 평형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격변적인 판 구조론 모형에 따라 지각이 수천 년 전에 빠르게 맨틀 아래로 이동했다면 이러한 온도의 차이를 예상할 수 있다.

이 발견은 판의 빠른 움직임과 급속한 침강에 대해서 타당성을 부여했다. 격변적 판 구조론은 과거에 발생했던 일이지만 오직 4500년 전의 전 지구적인 홍수 때에만 일어났다. 이 사건은 기존의 해양 지각이 모두 침강되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완전히 생성되었을 때 비로소 침강이 멈췄다. 오늘날 우리는 그 사건의 잔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결론: 지구는 젊다.

위의 네 가지 강력한 지질학적 증거들은 지질학과 성경이 말하듯이 지구가 단지 수천 년 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그 반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는 없다. 세속적인 과학이 주로 의지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와 같은 증명 가능하지 않은 가정만이 오래된 지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암석은 결코 오래된 연대를 보여주지 않는다. 화석 역시 오래된 연대를 보여주지 않는다. 지구는 젊다.

Tim Clarey, Ph.D

번역/박철웅(ITCM 수료자, 물리학 전공)

참고문헌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icr.org/article/four-geological-evidences-for-a-young-earth#>

창조과학선교회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창조과학탐사

지난 7월 한 달은 창조과학탐사로 가득 찬 한 달이었습니다.

성남금광교회와 서광교회 지난 7월 9-11일 나흘간 성남금광교회(담임목사 김 영삼)과 서광교회(최영진)에서 창탐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청소년과 청년들이었습니다. 두 교회가 서로 가까운 교회로써 함께 참석하여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광교회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자녀들은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 기뻐고, 부모들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전수했다는 기쁨이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LA 소망교회 지난 7월 10-13일 LA 소망장로교회(담임목사 백남준)에서 영어권 창탐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선옥 박사가 인도하였습니다. 소망장로교회는 김선옥 박사의 세미나와 이재만 선교사 세미나에 이어 2세들을 위한 창탐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함께 성경의 증거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남금광교회&서광교회



5차 한동대학교 교수 지난 7월 15-21일 한 주간 한동대학교 교수 창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직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질문과 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은 지금까지의 창탐보다 훨씬 진지함을 보였습니다. 횡수가 늘어남에 따라 창탐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총 49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에 왜 한동대가 필요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참석하신 교수와 직원들은 학생들 행사에 창조과학을 어떻게 접목시킬지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울러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과 관련된 분들도 참석했는데, 대안학교 교사들에게 이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대안학교 교사들이 창조과학 내용과 현 교육 상황을 인지할 뿐 아니라 이들 사역을 격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대안학교에 관한 안건이 나온 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공교육이 무너짐에 따라 기독교 대안학교의 방향이 더욱 중요

한동대학교



한데, 한동대를 구심점으로 창조과학과 함께 대안학교 사역이 진행된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동대 교수 창탐은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현선교교회

7차 동산고등학교 지난 7월 24-27일 안산동산고등학교(교장 조규철)에서 창탐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이 일곱 번째입니다. 창탐 동안에 많은 질문이 나왔고 이에 대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한창 학교에서 진화론을 접하는 시기에 그 문제점을 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학생들 가운데는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학생들은 성경과 예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기독교에서 믿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알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한 이들 중에는 앞으로 교회에 다니기로 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질문을 받은 창탐 이었는데 공룡, 빙하시대, UFO, 박병 등이 이들이 갖는 주된 궁금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충현선교교회 미국 캘리포니아 LA 북쪽 Glendale에 있는 충현선교교회 (담임목사 민종기) 교인 49명은 지난 7월25일 목요일 오전 8시에 담임목사님의 축복기도와 함께 그랜드캐니언 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 투어는 테네시 내쉬빌에서 온 김낙경 박사가 인도하였습니다. 참가자들 모두 LA에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라, 그랜드캐니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이 겨우 세분이었습니다. 여러 번 가보아서 친숙한 장소, 그러나 그곳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가 있었음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늘 내 곁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던 “유신론적 진화론”을 보게 되고 다시 한 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게 된 은혜로운 여행이었습니다.

동산고등학교



창조사역 집중 훈련(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ITCM)

과정은 창조과학 사역을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전문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다음 세대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창조과학선교회의 가장 심도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ITCM은 참가자에게 창조과학 지식의 전달을 통해 성경적 창조론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와 증거들을 배우도록 합니다. 주위 분들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기간 및 모집 인원

2019년 12월 22일-2020년 2월 9일 (7주) *날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LA 근교 창조과학선교회

모집 인원: 10명 이내

실내수업: 지질학, 천문학, 생물학, 인류학, 언어학 등 각 분야에 8명의 전문 강사를 통한 강의

창조과학탐사: 그랜드캐니언, 자이언캐니언, 브라이스캐니언 등 나흘 간의 창조과학탐사

필드트립: 앤자 보래고 주립공원과 오웬스 분지 등 두 번에 걸친 현장 실습

그 밖에 성경공부, DVD 시청, Q&A 등 다양하게 진행됨

참가비: \$1,500(숙식 및 모든 경비가 포함). ITCM 진행에는 참가자 전원은 장학금 혜택을 통해 실제 경비보다 아주 저렴하게 훈련을 받는 것임.

접수 방법

1. 신앙고백: www.HisArk.com About Act의 What We Believe에 명시된 6 항목에 동의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서 1 부
2. 대학 혹은 최종 학교 성적 증명서 (대학 2학년 이상의 청장년)
3. 본인 소개서 1 부 (지원동기와 이력서 포함하는 자기 소개서 2 페이지, 이메일로 양식 요청)
4. 참고인 3명 (연락처가 명시된 참고인 3명 중 1인의 추천서 포함, 양식 없음)

위 4 가지 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이현지 간사: hisark@gmail.com

Answers

고고학은 성경을 지지하는가?

증언에 관한 문제는 두 세 명의 증인들에 의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적 원리이다. 히브리 법에 따르면, 증인의 적절한 증거 없이는 어떤 사람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도 이와 비슷한 원리가 현대 과학 고고학에서 증명된다. 우리는 시편에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시85:11),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시119:89) 라고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세대보다 오래 동안 지속되며,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에 그 진리를 진리로 입증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독특한 범주에 두는 것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특별한 의사소통에 대한 “다른 면”이다. 인간의 언어는 모든 동물들과 독특하게 구별되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모든 계시들과 월등히 우월함을 보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과의 소통을 특별하게 구별한다.

성경적 원리인 “두 세 증인”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정확성을 지지하는 증거들을 선택할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증거는 나온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옹호하셨으며 그의 책은 계시와 예언과 함께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진정한 기록이다. 그분의 책이 독특한 이유는 바로 그분의 책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시대에 적용 가능할 뿐 아니라, 현재를 포함한 여러 세기를 걸쳐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언어의 기적에 관한 연구의 “이면”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계시하시기 위해 결정하신 방식이며 성령의 계시 외에는 발견할 수 없는 깊은 사물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다.

성경 기록과 연관되는 고고학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고고학적 발견으로 인해 변한 적은 결코 없다. 그렇지

만 때때로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신약과 구약에서 사용된 단어들이 새롭게 조명된 적이 있다.

우리는 점토나, 파피루스 그리고 돌에 기록된 문서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주변국가의 관료의 명칭들을 비롯한 많은 단어들이 더 잘 이해되고 있는 것을 본다.

구약은 근대의 기록이 아닌 고대의 책이며, 그 문체는 서양의 것이 아닌 동양적이다. 때때로 그것은 현대의 물질적 세대의 “과학적 정확성”에 따르는 것이 아닌, 그 문체와 고대 유대의 상징적인 표현 스타일에 따라 해석되어야만 한다.

어떤 경우 성경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현상적 언어 (the language of phenomena)”를 사용한다.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구가 “도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과학에 관해 다룰 때는 놀랍도록 정확하다.



고고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성경의 기록을 다루면 다룰수록 그것이 독특한 기록임을 확신하게 된다. 수많은 점에서 성경은 주변 사람들이 남긴 다른 기록들에 비해 엄청나게 월등하다.

우리는 “고고학이 성경을 증명했다”라고 말하지 않으며 그런 제안도 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 성경적 고고학에 관한 강사를 소개할 때 이러한 말을 하긴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절대적이지만 고고학은 그렇지 않다. 만약 고고학이 성경을 증명한다면 고고학이 성경보다 더 위대한 것이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것보다 위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확신을 회복시키는 많은 일을 했다. 과거에 모호했던 문장에 대한 많은 조명을 제시했고 우리의 이전 세대가 이해하지 못했던 관습과 문화 그리고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고고학은 오늘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연관성을 가진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벧전3:15)

번역/이충현(치과 의사, 창조과학선교회 강사)

● 위 글은 The New Answers Book 1, Chapter, 25 Does Archaeology Support the Bible? 중 일부를 발췌한 글이다.



이 기사는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한 자들에 의한 간증 소감문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 www.hisark.com 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다. 아니 얼마 전까지 믿었다.

사실 나는 항상 성경과 과학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감에 관심이 많았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일까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

즉, 어떤 한 종이 또 다른 종으로 진화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는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우주의 기원, 빅뱅이론의 성립 그리고 공룡과 지구의 나이 등은 애써 성경과 교과서를 합리화하려고 애를 썼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을 부정하고 있었다. 심지어 탐사 전에는 부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법을 과학자들이 발견하여 이름 붙인 게 빅뱅이론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신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성경은 중요한 사건들만 다룬 것은 아닐까?" 등 끊임없이 성경의 내용을 의심하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 이해하기 바빴다.

본격적인 창조과학탐사의 첫째 날, 선교사님께서 진화론 그리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순간, 내 모든 고정관념이 깨어졌다. 제대로 된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는 기쁨도 물론 있었지만 느꼈던 감정의 대부분은 두려움이었다. 너무나도 잘못된 이론들을 가장 열심히 공부했다는 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뻔한 오류들을 목인에 왔다는 게, 그리고 나는 절대 믿지 않는다고 자부했던 진화론이 이미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게 충격을 넘어서 두려웠다.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빼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였다.

외우기에 급급했던 세계사 연대표를 단 한 번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보지 않았고, 항상 고민하였던 이 시대의 크리스천으로써 살아가는 법 등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많이 깨달았다.

사실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앙에 대해 많은 갈등이 있었다. 겉으로는 모든 관점, 종교, 심지어는 성취취향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포용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잘못된 것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그래서 더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를 제외하고 모두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내가 너무 딱 막힌 사람인가, 이것도 차별을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렇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나' 로써 학교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되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철학이나 소신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아니 유일한 바른 길임을 깨닫게 되었다. 주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려 하는 내가 아닌, 주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주님이 들어 쓰시기에 좋은 내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대학에서도 올바른 위치에서 주님을 빛내는 삶을 살 것이다.

이 창조과학탐사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완벽한 계획 속에서 실행 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주님의 일에 들어 사용하여 주세요. -2조 조장 김 룰

처음 비전트립을 왔다. 처음엔 우리 교회도 아니어서 아는 사람도 없고 가기가 별로 싫었다. 그런데 와보니 이재만선교사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재미있고 좋았다. 그리고 나는 이과여서 과학이 너무나 중요해서 과학 공부를 정말 많이 했다. 그 중 지구과학을 너무 좋아하고 지구과목이 수능과목까지 이어질 것 이어서 지구과학은 정말 정말 잘 알았다! 화석을 선캄브리아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다 나눠서 외우고 지층도 다 배웠다. 진화론도 내가 다 배우고 외웠던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만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배운 게 사실이 하나도 없고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물론 전에도 창조과학을 통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걸 믿었지만, 배우는 게 진화론 쪽이어서 창조과학을 알면서도 진화론에 대한 내용이 이상하다는 생각 보단 재미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공부했다. 하지만 이번에 진화론의 잘못된 점을 들어보니 내가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그래서 처음엔 지구과학을 계속 배워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재만선교사님이 과학을 더 잘 배우고 확실히 배워서 진화론이 틀리다는 것을 더 정확히 알라고 하셨다. 한국 가서도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지구과학, 진화론을 배운다고 해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 오는 비전스쿨이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고 더 많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말 좋았다. 다들 수고하신 것 같다. -정다현, 고 2

2019/2020 ACT Schedule

9/2-10	창조과학탐사 (온누리교회여성예배), 이재만
9/11-16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실버미션), 이재만
9/17-20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초대교회), 이재만
9/21	창조과학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9/27-29	창조과학세미나 (산호세임마누엘장로교회), 이재만
10/14-18	창조과학탐사 (뉴저지필그림선교교회), 이재만
10/19-25	창조과학탐사 (전성교회), 이재만
10/26-11/1	창조과학탐사 (베이직교회), 이재만
11/18-22	창조과학세미나 (대만국제은혜신학대학원), 이재만
12/30-1/2	창조과학탐사 (21차유학생창조과학탐사), 이재만
1/13-18	창조과학탐사 (일산산성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